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일반 지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리는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인류의 보화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제 9 차 동남부 성령대회
일시- 9 월 2 일(주일) 오후 1 시 30 분 - 9 월 3 일 오후 5 시
장소- 애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강사- 미셸 모란(전 세계 성령쇄신 봉사자 회장)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전 한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회장)
- ※ 성모님과 함께 하는 세나클 여정 피정 안내
일시- 9 월 7 일(금요일) 오후 4 시 -9 월 9 일 오후 2 시
장소- St. Leo Benedictine Abbey, St. Leo FL 33574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
참가비- \$200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천주교 사도직회)
- ※ 제 12 회 돈보스코 골프대회 (탐파 성당)
일시- 10 월 7 일(주일) 오후 1 시
장소- Temple Terrace Golf & Country Club
신청마감- 각 본당 사목회장님께 9 월 25 일 까지

[잭슨빌]

- 성령대회 참가하실 분은 9 월 1 일까지 윤미임 데레사 자매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게인즈빌]

- 오늘 미사후에 전체식사가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	-	-	-	-
잭슨빌	\$226	-	-	-	\$226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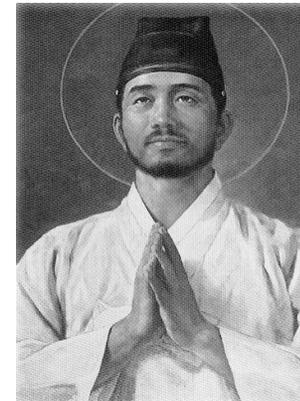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換)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어인수 안토니오 (904) 866-0708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복음과 비슷한 상황이나 질문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과 진리,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기가 힘들 때, 미사에 참여하는 것에 싫증이 날 때,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충실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악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할 때, 의혹과 불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따르거나 어떤 신을 경배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그분을 두고 떠납니까? 복음의 가르침이 딱딱하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 참아 낼 수 없을 듯할 때, "누가 이 모든 것을 생활 규범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단지 성인이나 어리석은 사람밖에 없고 나는 둘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우리는 갖가지 신들과 통치자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쾌락과 성, 교만과 이기주의, 허영과 아름다움, 번영과 소비주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생명의 말씀을 주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삶 안에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 주고, 만족시켜 주고, 실현해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한 가운데 개개인은 오늘날 자주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안팎으로 긴장에 눌러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분,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없이 저물지 않는 충만한 삶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다른 신들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21 주일

[제 1 독서] 여호수아기 24,1-2 7.15-17.18 L C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화답송] 시편 34(33),2-3.16-17.18-19.20-21.22-23(◎ 9 7)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21-32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는 큰 신비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 60 L-69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8/25)	신미영 미카엘라	황현철 라우렌시오	황승민 이냐시오	
	잭슨빌 (8/26)	이교순 카타리나	최차숙 마리아	박은숙 율리안나	이상미(미리암) 서정원(헬레나)
다 음 주	게인즈빌 (9/1)	최건화 안젤라	고승희 엘리자벳	백진 프란체스카	
	잭슨빌 (9/2)	한상신 디나	김현희 아네스	송재민 하상바오로	김정숙(젬마) 렉시(베로니카)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263	527	169	268
잭슨빌	26	342	170	59

